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② 당회: 1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③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④ 작은 바자회: 4 여선교회에서 성전건축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바자회가 1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품목: 수제 Key 고리, 팔죽, 호박죽 등)

⑤ 기도: 이태한 목사는 화요 찬양집회 예배 인도를 합니다.

⑥ 훈련: 성경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어머니 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2011년 6월1일(수)-4일(토) 오후 5:00-10:30

장소: New Life Church (24 Akoranga Dr, Northcote, North Shore)

문의: 479-4119, 410-1004 회비: \$150(교재,식사,유니폼 포함)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국내 선교지

▷City Mission 섬김

▷밀알장애우 봉사

## 6월 교회일지

선교수요일(루마니아):  
6월 8일 (수요일)

성령강림주일:  
6월 12일 (주일)

성찬주일:  
6월 26(주일)

공동체주관수요일:  
6월 29(수요일)



## 교우 소식

축하: 박재용 장로(김영옥 권사) - 손자 출생 축하합니다.

## 6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5일	정관영	장연식	김현주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2일	박일영	방명아	심창진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9일	현석호	원미경	진혜령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6일	고성일	최장한	공동체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섭 형제와 여러 질병으로 고통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향촌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이 기도에 더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충만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3. 온 성도들이 성전건축에 관심과 기도를 쉬지않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4. 한인교회들이 침체된 뉴질랜드의 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재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5월 29일**

주보 13권 22호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예배로 부름	시편 99:5, 9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5장 (55장)	다함께
*성서교독	24(14). 시편 46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83장 (172장)	다함께
대표기도		김영길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20:19-23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태한목사
찬송	191장 (427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정관영 장로 6월 12일: 박일영 장로

지난주일통계 | 1부 117명 2부 13명 학생부 26명 아동부 16명 유아부 12명 총계184명

건축헌금  
지난주: \$30.00  
총계: \$592,009.97

##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정민집사
성경봉독	민수기 31:1-8	인도자
설교	값으시는 하나님	심창진목사
찬송	주를 찬양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장연식집사

## 성서교독 24: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  
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쥐고 창을 꿰으며 수레를 불사  
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힘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  
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  
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  
시니

**아픔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로다**

##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철홍집사
성경봉독	시편 27:1-14	다함께
설교	응답하는 기도	심창진목사
찬송	369장 (487장)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최옥진집사  
다음 수요기도: 김현주집사

## 갈보리 칼럼

### 너 때문이야

오늘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의 대부분  
의 소재는 ‘너 때문에’로 일어나는 이야기  
들입니다. ‘너 때문에’ 연인이 갈라서고,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너 때문에’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연인이 갈라서는 경우  
는 볼 수 없고, 나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경우도 볼 수 없으며,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유행하는 노래들도 ‘너 때문에’ 라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표 여성  
그룹인 애프터 스쿨이 부른 ‘너 때문에’ 라는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음악 사이트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히트를 쳤습니다. 가사 내용을 들여다보  
면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너 때문에 많이도  
웃었어 너 때문에 사랑을 믿었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모두 다 울었어.’ 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하는 그 근본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훼손되어  
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가정이 우선되  
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은 너무 심하  
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 전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들은 거의가 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서부  
터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은 여러 가지로부터 시작  
되지만 끝에 가서는 당신 때문이라는 그 한 가지  
로 종결됩니다. 이혼이라는 종착역도 당신 때문이  
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부부싸움 할 때 꼭 양념으로 들어가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신세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그 말이 들어  
가면서부터 부부싸움의 격이 틀려집니다. 이 세상  
에 강제로 납치되어서 결혼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결혼은 나에 의해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다고 세상에 공포하기 까지 했습  
니다.

우리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는 특하면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  
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  
니다. 내가 싫은데 끌려서 이 호주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히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쉽게 ‘자식 때문에’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호주로 왔고, 너희들 때문에 부모가 힘든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 앞날에 대한 부담감 등  
모든 것들이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자식  
때문이라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와  
놓고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  
고 는 부모 자신들은 스스로 위안을 받지만 자식들은  
보이지 않는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하  
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그  
책임을 ‘너 때문에’ 라고 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이 병들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과  
병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  
손가락은 분명 하나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손가락은 분명히 세 개입니다. 가정의 어려  
움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인지한다면 우리  
의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한 에덴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말입니다.

호주 시드니 하나교회 김해찬 목사